

직원을 감동시켜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

연 마 전 종영한 TV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은 술한 화젯거리를 남기고 종영했다. 그 중에서도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 등장한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또 하나의 신드롬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세상사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며 열정적인 삶에 대한 동경과 의욕을 불어넣어 주는 내용이 대중의 감성에 제대로 파고 든 것이다.

직원들의 마음을 적시는 감동경영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감성을 앞세운 경영방식 역시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직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고객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다는 논리가 CEO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은 감성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인물이다. 언니처럼 친근한 이미지로 학생들에게 다가서는 이총장은 매년 5월 열리는 학생들의 성년축하행사에서 테크노댄스를 시작으로 난타, 탭댄스,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바쁜 외부활동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감동시키고자 기꺼이 시간을 투자한 그녀의 리더십은 두터운 신임으로 이어졌고 연임을 가능케 한 비결 중 하나로 작용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역시 직원들과의 스킨십을 즐기는 감성경영인 중 하나다. 대학 시절 그룹사운드 활동을 했던 실력을 심분 발휘해 직원들 앞에서 통기타 연주를 들려주는가 하면 불우이웃돕기 행사에서는 앞치마 차림으로 맥주잔을 나르기도 한다. 대기업 회장님으로서의 위신을 과감히 던져버린 그의 행동은 직원들에게 참신한 활력소가 된 것은 물론 애사심을 함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총장이나 신회장처럼 감성을 자극하며 마음을 사로잡는 경영방식은 다소 경직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극복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인간적 측면을 강조하는 덕에 직원들의 호응 또한 커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직을 방지하는 역할까지 할 정도다.

벤처가 만들어내는 감동은 더 진하다

벤처업계에도 예외 없이 감성경영 바람이 불고 있다. 어찌 보면 유연한 기업문화를 간직한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직원 복지나 이벤트 개최 등의 비용투자 측면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벤처기업의 선전이 더욱 귀감이 되기도 한다.

이레전자산업 정문식 대표의 경우는 직원 감동을 넘어 직원 가족들에게까지 손을 뻗었다. 해마다 1~2억의 사재를 털어 직원 자녀들에게 어학연수, 스키캠프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 게다가 집안일을 돌볼 시간이 없는 여직원들을 위해 김장김치까지 나눠주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그밖에 레인콤의 양덕준 대표, 다날의 박성찬 대표, 안철수연구소의 김철수 대표는 직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함으로써 감성경영을 실천하는 사례에 속한다. 양대표와 박대표의 경우 머리를 염색하거나 브리지를 넣는 등 자주 헤어스타일을 바꿔 신세대 감각을 공유하려 노력하는 케이스다. 김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사내 밴드 '한랩 올스타즈 밴드'를 결성해 송년회에서 열창의 무대를 마련하는 열의를 보였다.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진심으로 열의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듯이, 직원을 감동시키고자 노력하는 CEO의 땀방울 역시 행복한 기업을 일구어낼 것이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하반기 업무에 돌입한 지금, 직원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연말 이벤트 준비를 슬슬 시작해 보시라. 감미로운 기타연주, 화려한 댄스, 깜짝 마술쇼 등 어떤 것이든 좋다. 앞으로 남은 4개월여의 시간은 이벤트를 준비하기에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은 시간이 아닌가. CEO의 진심이 녹아있다면 직원들의 감동과 환호는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